전국비구니회, 호국성지 걸은 까닭은

11월 9일 장경사서 '불교유적 순례' 봉행

집행부 출범 2주년 맞아
대사회적 역할 모색 나서
남한산성 축조군승 기려
푸르니환경 캠페인 '눈길'

광주 장경사=송지희 기자


우중에 진행된 이날 순례서는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제12대 집행부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법석으로 회향해 주목된다. 특히 호국성지 남한산성에서 걷기순례를 통해 과거 스님들의 호국원력을 되새기며 종교평화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한편,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 속 종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9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에서 '호국성지 남한산성 불교유적지 순례 및 환경실천 캠페인'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으로 기획됐다. 집행부 소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념행사를 대신해, 보다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행보를 통해 변화를 일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애초 전국비구니회 내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순례는 장경사에서 남한산성 성벽을 따라 행선하고 다시 장경사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 코스다. 그러나 오전부터 내린 차가운 가을비로 남한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들이 땅을 덮어 참가대중들의 발길을 무겁게 했다. 우비를 쓰고 옷깃을 여며도 때 이른 추위가 뼛속으로 스몄다. 그러나 참가대중들은 멈추지 않고 성본 스님의 죽비소리를 따라 묵묵히 성벽길을 걸었다.

행선에 앞서 회장 본각 스님은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일대의 쓰레기 등을 줍고 수거해 호국성지를 보다더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때문에 점심공양은 일체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연잎밥과 국, 떡과 과일 등으로 나눠졌다.

두 번째는 남한산성 순례를 통해 함께 걷고 명상하면서 과거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지켜냈던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기는 것, 세 번째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 등이다.

본각 스님은 특히 호국성지로서의 남한산성의 의미에 대해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물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장의 역할을 해 온 반면, 기독교 역사는 200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카톨릭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을 비롯해 천진암터, 주어사지 등 불교의 원력이 스민 역사적 장소들을 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게 돼, 근본적인 고민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다른 종교를 향해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명확히 알고 이를 알려 불교의 역사와 장소가 카톨릭 성지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한산성을 첫걸음으로 삼았다"며 "이 시대 호국은, 그리고 종교의 역할, 나아가 종교평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 선운사, 제13회 선운문화제 눈길

수륙무차평등대재, 보은염 이운 재현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6~7일 선운사 일원에서 선운문화제〈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선운문화제에서는 수륙무차평등대재, 보은염 이운식,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1월 6일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조선 성종6년(1475년) 왕실에서 봉행한 이후 10여 년간 봉행된 전통을 지닌 것으로 선운사 가람 중창 후 한동안 중단됐던 것이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 어산장 인묵스님 주관으로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도 열렸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진관사, 삼화사, 창원 백운사 등의 수륙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호남권 사찰에서의 수륙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선운사가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복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수륙무차평등대재를 통해 이 도량을 지켜온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교의 근본, 출가사문으로 돌아가는 절차탁마의 첫걸음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라 법흥왕 다례재 및 문화대축전

경주 불국사 신도회(회장 이영숙)가 11월 2일 경주 코모도호텔 잔디광장에서 법흥왕을 기리는 다례재와 행복바라미 지역문화대축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은 "신라 법흥왕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인 신라불교를 최초 공인한 분"이라며 "업적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올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파라미타, 탁발문화행사 진행

30여 스님들과 70여 재가불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탁발 행진하는 이색행사가 열렸다. 광주 파라미타청소년연합(지부장 소운, 관음사 주지)은 11월 6일 호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일대서 스님과 재가불자들 100여 명이 함께하는 '제2회 전통 탁발 재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2019년에 이어 2번째 열린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양동시장상인회와 서구청(청장 서대석), 조계종 신도회, 백양사 신도회,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운전불자회 등 단체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사, 공양미 콘서트 개최

자비의쌀 2630kg 익산시 전달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코로나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4회 공양미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11월 7일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관음사 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양미 나눔 콘서트는 관음사 주지 덕림스님,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 등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관계자만 참석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SNS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착한벗들, 제과자격증 과정 개설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주지)은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11월 8일 전주 아트갤러리 제과제빵학원에서 개설된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에는 전주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10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월, 화, 목 3일간에 걸쳐 3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주춘매 착한벗들센터 센터장은 "손수 만든 빵과 과자를 가족, 이웃들과 나누면서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1월 5일 경내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대재, 당신의 나한님은 누구십니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나한전의 의미와 그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행사로,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스님들의 불공, 축원기도에 이어 합창단의 음성공양, 주지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중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백대재 기간만이라도 '내가 당당한 수행자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하며 "당당한 수행자란 청정한 삶을 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팔정도를 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스님 팔순 맞아 지역주민에 회향

80명의 어르신을 위한 80세 노스님의 특별한 잔치가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동구 동원사(주지 지장)는 회주 지각스님의 팔순을 맞아 11월 8일 지역주민 80명 초청 팔순 잔치를 열었다.

'80분의 팔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팔순잔치'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지장 스님은 "회주스님께서 '당신만의 팔순 아닌 이 시대를 함께하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팔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11월 21일 오전 11시 특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사바세계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수계를 해주십니다.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수계접수자가 많아서 12월 한달내내 매주 일요일마다 수계해줍니다.)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